

#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과 어순에 관한 연구

-유정성을 중심으로-

주 향 아  
(연세대학교)

## <Abstract>

**Ju Hyang-A. 2013. A Study on Formation and Word order of 'wa/kwa' Conjoined Noun Phrase.** *Korean Semantics*, 42. This paper deals with formation and word order of 'wa/kwa' conjoined noun phrase. This study particularly concentrates on animacy. Previous studies categorize animacy in two binary features([+animacy], [-animacy]) and organize animacy hierarchy depending on degree of animacy. It is usual that constituents of conjoined noun phrase have same status in terms of animacy hierarchy. Under any circumstances, however, constituents which are have different degree of animacy can construct conjoined noun phrase. In a aspect of word order, there is a tendency for a constituent which is located at higher position with animacy hierarchy precede another constituent. For conjunction of noun phrases with same degree of animacy, three principles influence word order; me-first principle, naturalness principle, salience principle. Though, due to special culture in Korean society, in some cases word order doesn't correspond with degree of animacy or general word order principle.

핵심어: 등위 접속 명사구(conjoined noun phrase), ‘와/과’(wa/kwa), 어순(word order), 유정성(animacy), 유정성 위계(animacy hierarchy), 나-먼저 원리(me-first principle), 자연성의 원리

(naturalness principle), 현저성의 원리(salience principle)

## 1. 들어가기

접속조사 ‘와/과’는 등위 접속 명사구를 만든다. ‘등위 접속’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와/과’에 의해 형성되는 명사구는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의 지위가 동등하다는 것이 가정된다. 이렇게 선후행 명사구의 지위가 동등하다면 둘의 위치를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용례를 검토해 보면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에서 선후행 명사구의 위치가 뒤 바뀌었을 때 어색한 경우가 존재하며, 그 어순에는 어떤 경향성이 존재하는 듯하다. 문법적으로는 ‘와/과’에 의해 연결되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는 요소들이 실제 쓰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를 형성하고 어순을 결정하는 데에는 특정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에 주목하여 말뭉치 자료를 활용한 사용례를 중심으로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과 어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본고는 유정성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다. 즉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를 형성하고 어순을 결정하는 데 유정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순이 결정되는 것이 인지적 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만큼 인지적 접근법도 함께 취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NP 와/과 NP’ 구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문어 말뭉치 중 원시 말뭉치와 형태 분석 말뭉치를 활용했다. 계량적,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와/과’ 구문과 유정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단히 정리하고, 3장에서는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과 유정성 위계 사이의 관계를 논의할 것이다. 4장은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어순과 유정성 위계의 관계를 논의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하며 끝맺는다. 이 연구는 기존에 ‘와/과’ 구문에 대한 논의가 격 기능이나 접속 과정에

대한 논의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유정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본다는 점, 유정성 위계가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언어적 현상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 2. 선행 연구

기존의 ‘와/과’에 대한 논의는 이 조사가 접속조사와 공동격조사의 역할을 둘 다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의 격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 이 조사의 의미 기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집중되어 있었다.<sup>1)</sup> ‘와/과’의 격 기능을 어떻게 보든 이들이 둘 이상의 명사구를 한꺼번에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앞뒤 명사구의 연결 관계에 대한 것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혹은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 전체를 다루더라도 접속이 이루어지는 통사적 과정이 무엇인지, 이때의 접속을 어떤 종류의 접속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sup>2)</sup> 본고는 ‘와/과’ 구문의 어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는 선행 연구들에 기대기로 한다. 여기서는 유정성과 어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유정성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많은 학자들이 유정성이 통사적으로 부호화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유정성이 통사현상의 어떤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언어마다 어떻게 부호화되는지에 대해 논의해 왔던 것이다. 유정성은 격 표시, 주어 선택, 어순 등 통사적 측면에서 여러 방면으로 부호화된다. 그렇다면 ‘유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Kittila, Seppo 외(2011:5)에 따르면 유정성은 생물학적 의미와 언어학적 의미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언어학적 의미에서의 유정성은 개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힘이나 사건을 발생하게 하는 힘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이런

1) 김영희(1972), 김성주(1995), 김종록(1999) 등

2) 박호관(2001), 박호관(2002), 최재희(1985) 등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가장 유정성이 높은 개체로 간주된다. 그런데 언어적으로 독립적인 개체는 여러 가지로 지시될 수 있고, 어떻게 지시되느냐에 따라서도 유정성이 달라진다. 이런 유정성의 차이는 위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Yamamoto(1999:1)는 유정성을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인지적 척도’라고 말했다. 유정성은 단선적인 척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 안에서의 인간의 자연적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Yamamoto(1999)는 유정성이라는 것이 어느 한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인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유정성의 정도를 나누는 기제가 복잡하다는 것을 보였다. 김은일(2000:72)은 유정성을 ‘유생성’으로 번역하는데, 유생성을 ‘생명을 가진 생물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유생성 현상이 개별 언어의 다양한 문법 층위에서 나타나며, 언어유형론적으로도 체계적으로 부호화되어 나타남을 보았다.

이에 따르면 언어적인 유정성이란 단순히 유정물과 무정물을 구분하는 [+animate]의 자질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다단한 요인들이 얹혀 이루어지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인지 과정에 따라 때로는 무정물이라도 유정성을 가질 수 있으며, 유정물이라도 유정성이 거의 인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유정성에는 정도에 따라 위계가 존재하며, 이 위계가 통사적으로도 드러난다. 유정성이 언어적으로 부호화될 때는 다른 여러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하게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순도 유정성과 관련된 문법 현상 중 하나이다.<sup>3)</sup> 김은일(2000:76)에서는 어순이 유생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이 꽤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여러 언어에서 유생성이 높은 명사구가 낮은 명사구보다 선행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Yamamoto(1999)에서도 이러한 점

3) Holly P. Branigan 외(2008)에서 언급했듯이 사실 유정성이 어순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것은 의견이 분분하다. 그에 따르면 유정성이 문법 기능 할당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문법적 기능 모델’과 어순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어순 모델’이 있다. ‘어순 모델’은 유정성이 어순에만 영향을 미치며, 유정물 개체가 무정물 개체보다 어순에 있어 앞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유정성이 문법 기능 할당과 어순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도 있다. Holly P. Branigan 외(2008)는 유정성이 문법 기능 할당과 어순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을 지적했다. Yamamoto(1999:52-53)는 여러 언어들에서 유정성 위계 상 상위에 있는 요소가 하위에 있는 요소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보였고, 특히 SE 아프리카 언어인 Shona의 경우 등위 접속구에서 인간 명사구가 비인간 유정 명사구에 선행하고, 비인간 유정 명사구가 무정 명사구에 선행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 언어는 유정성에 관한 일반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비문이 된다고 한다. 한국어의 ‘와/과’ 등위 접속 구문은 유정성에 따라 접속의 순서가 원칙으로 정해져 문법적 제약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언어에서 유정성이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어순과 관련하여 유정성 위계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개체가 가지는 유정성이 단순히 [+animate]의 자질로 이분되는 것이 아닌 만큼, 무정물과 유정물 사이의 유정성 정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Croft(1990)는 유정성 위계를 세 가지로 하위 분류하여 제시했다.

(1) Croft(1990)의 유정성 위계 :

- ① 인칭 위계 - 1인칭, 2인칭 > 3인칭
- ② 명사구 유형(NP-type) 위계 - 대명사 > 일반명사
- ③ 유정성 고유의 위계 - 인간 > 비인간 유정물 > 무정물

생물학적인 유정성에 기초한 유정성 위계는 (1)-③의 유정성 고유의 위계이고, (1)-①의 인칭 위계는 인간 범주에만 해당한다. Croft(1990)는 이것을 순수하게 언어적 접근에서 내세웠으며, 세 가지 하위 위계의 정신적인 배경은 고려하지 않았다(Yamamoto 1999:59).<sup>4)</sup> Crobett(2001)는 유정성 위계에 친족어까지 포함하여 확장된 유정성 위계를 제시했다.

(2) Crobett(2001)의 유정성 위계 :

화자(일인칭 대명사) > 수신인(이인칭 대명사) > 삼인칭 > 친족 > 인간 > 유

4) Yamamoto(1999), 『Animacy and Reference』, p. 59

Croft comes to this solution through a purely 'linguistic' approach, without considering any psychological background of the three sub-hierarchies.

정물 > 무정물<sup>5)</sup>

이밖에 여러 연구자들이 유정성 위계를 제시했는데 본고는 Croft(1990)와 Crobett(2001)의 유정성 위계를 종합하여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과 어순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sup>6)</sup>

### 3.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과 유정성 위계

접속조사 ‘와/과’는 앞뒤 명사구를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만들어 주는데, ‘와/과’의 선행형 요소가 명사구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접속되었을 때 어색한 예들이 존재한다.

- (3) 가.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나.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간다.  
       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굴곡이 심하다.
- (4) 가. ?나와 강아지가 뛰었다.  
       나. ?교실에 학생과 책상이 많다.  
       다. ?저 집에서는 가축과 나무를 기른다.

(3)의 예들에서 보이는 ‘NP 와/과 NP’ 명사구는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반면 (4)의 ‘NP 와/과 NP’ 명사구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

5) Crobett(2001), 『Number』, p. 56

speaker(1st person pronouns) > addressee(2nd person pronouns) > 3rd person > kin > human > animate > inanimate

6) 유정성 위계는 여러 가지 자질을 통해 더 세분화할 수 있다. 가령 [+animate]의 자질에 따라 개체를 두 부류로 나누었다면, [+animate]는 다시 운동성([±locomotion]) 자질 등으로, [-animate]는 다시 추상성([±concrete]) 자질 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위계 상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본고는 유정성 위계를 세우고자 하는 논의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으며, 가장 기본적인이라고 여겨지는 유정성 위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진다.

(4') 가'. 내가 뛰었다. 강아지가 뛰었다.

나'. 교실에 학생이 많다. 교실에 책상이 많다.

다'. 저 집에서는 가축을 기른다. 저 집에서는 나무를 기른다.

(4')는 (4)의 예문들을 접속이 이루어지기 전의 문장들로 바꾸어 본 것이다. 흔히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는 위와 같이 두 문장이 하나의 성분을 제외하고 동일한 성분을 공유할 때, 서로 다른 하나의 성분이 ‘와/과’에 의해 접속되어 형성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4')의 문장들은 ‘와/과’에 의해 접속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고, 이론 상 접속이 되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4)에서와 같이 (4')의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모어 화자의 직관에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는 그 이유를 유정성의 위계에서 찾고자 한다. (3)과 (4)의 예를 보면 (3)은 ‘와/과’에 선후행하고 있는 명사구가 유정성 위계 상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는 선후행 명사구가 유정성 위계 상 서로 다른 지위에 있다. 유정성 위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4가)는 ‘인간+와+비인간 유정물’, (4나)는 ‘인간+과+무정물’, (4다)는 ‘비인간 유정물([+locomotion])+과+비인간 유정물([-locomotion])’의 구성인 것이다.<sup>7)</sup> 즉 ‘와/과’에 의해 등위 접속 명사구가 형성될 때에는 앞뒤 명사구가 유정성 위계 상 같은 위치에 있어야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sup>8)</sup> 말뭉치를 통해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예문을 살펴보면 실제로도 선후행 명사구의 유정성 위계가 동등한 것들끼리 이어진 예문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5)를 보면 선후행 명사구의 유정성 위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와/과’에 의한 접속이 자연스러운 경우들이 있다.

7) (4다)는 ‘가축’과 ‘나무’가 모두 ‘비인간 유정물’에 속하므로 유정성 위계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괄호 안에 병기했듯이 ‘가축’과 ‘나무’는 [+locomotion]의 자질을 다시 위계가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locomotion]의 자질을 가지는 ‘가축’이 [-locomotion]의 자질을 가지는 ‘나무’보다 위계 상 상위에 위치한다.

8) 이때의 유정성 위계는 ‘유정성 고유의 위계’를 말한다.

- (5) 가. 미래사회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휴머니즘의 사회이다.  
나. 사람과 말이 한 덩어리가 돼야 하는데 너는 말과 사람이 전혀 각각이다.
- (6) 가. 이곳은 모든 동물과 식물의 낙원이었다.  
나. 물은 산소 다음으로 인간과 동물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다.
- (7) 가. 거리마다 지하철을 놓느라 땅을 파헤쳐 사람과 차들이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린다.  
나. 이제 정부와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힘을 합하여 쌀을 새로이 인식해야 한다.

보통은 ‘와/과’에 의해 등위 접속이 될 때 선후행 명사구의 유정성 위계가 동등한 것이 일반적이나, 몇몇의 경우에는 위계가 다르더라도 접속이 자연스럽다. 먼저 (5)의 예문을 보면, (5가)에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을 논항으로 요구하는 서술어는 ‘공존하다’이다. 이 서술어는 교호성 서술어로 ‘NP 와/과 NP’ 구성을 논항으로 요구한다. (5나)의 ‘한 덩어리가 되다’는 교호성 서술어는 아니지만 복수성을 가지는 주어를 요구한다. 또 ‘사람과 말’은 ‘말’이 ‘사람’의 일부로 취급됨으로써 전체가 의미 상 하나로 묶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처럼 서술어의 의미 특성 상 ‘NP 와/과 NP’ 구성이 요구되거나 ‘와/과’의 선후행 명사구가 의미 상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sup>9)</sup> 둘의 유정성 위계가 다르더라도 접속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sup>10)</sup>

9) 이와 같은 표현은 다소 모호한데,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의미 관계가 전체와 부분이거나, 유와 중, 소유자와 피소유물 등의 관계일 경우 ‘NP 와/과 NP’ 구성으로 접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0) 서술어가 복수의 대상을 논항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함께, 같이’ 등의 부사가 문장 내에 개입되면 유정성 자질이 서로 다른 명사구의 접속이 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앞의 (4)를 부사어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4') 가. 나와 강아지가 함께 뛰었다.

나. ?교실에 학생과 책상이 모두 많다.

다. 저 집에서는 가축과 나무를 같이 기른다.

(4'')은 분명 (4')보다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처럼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이 복수의 대상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정성 자질이 서로 다른 명사구도 보다 자연스럽게 접속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6)의 예문은 ‘NP 와/과 NP’ 구성이 관형어로 사용된 예이다. 이와 같이 ‘와/과’의 선행형 요소가 유정성 위계 상 서로 다른 지위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관형어로 묶여 뒤에 오는 명사구를 함께 수식할 수 있는 의미 관계에 있다면 접속이 가능하다. (7)의 예문은 ‘와/과’에 의해 접속되는 두 명사구 중 [-animate]의 자질을 가지는 명사구가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에 있어 때때로 유정성을 가지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이다. Yamamoto(1999:18-21)에서는 컴퓨터나 자동차, 조직이나 지리적 개체, 지역사회 등이 유정성의 측면에서 유정성과 무정성의 경계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정물이 아니지만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컴퓨터), 이동성이 있으며(자동차), 개별적인 인간들로 구성되어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조직이나 지리적 개체, 지역사회)에서 종종 생물처럼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정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7)의 예처럼 문맥이나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의하여 이들에 환유적인 유정성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와/과’에 의해 접속될 수 있다.

#### 4.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어순과 유정성 위계

이 장에서는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어순과 유정성 위계 사이의 상관 관계를 알아본다. 기존의 유정성과 어순에 대한 연구를 보면 유정성 위계가 높은 것이 낮은 것에 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에서도 유정성 위계가 높은 것이 선행 명사구로, 낮은 것이 후행 명사구로 접속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실제로도 이러한 어순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Croft(1990)와 Crobett(2001)에서 제시한 유정성 위계를 중심으로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가 유정성 위계 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유정성의 정도가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핀다.

그런데 한국어는 3인칭 대명사가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구어에서는 3인칭 대명사의 쓰임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너와 그(녀)’의 표현보다는 ‘너와 그 사람, 너와 그 아이’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게다가 한국어는 호칭어나 지칭어가 다양하여 대명사가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구 유형 위계와 관련한 어순은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자리에서의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유정성 위계가 동등한 명사구의 경우에도 선후행 명사구의 어순이 어떤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는 어순을 결정하는 다른 인지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유정성 위계가 서로 다른 명사구의 어순과 유정성 위계가 동등한 명사구의 어순을 함께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유정성 이외에 어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 4.1. 유정성 위계가 다른 명사구의 어순

여기서는 Croft(1990)와 Crobett(2001)의 유정성 위계에 따라, 유정성 위계가 서로 다른 명사구의 경우 ‘NP 와/과 NP’ 구성에서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한다. 명사구 유형 위계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Croft(1990)의 유정성 고유의 위계와 인칭 위계, 그리고 Crobett(2001)의 확장된 유정성 위계에 입각하여 어순을 검토해 본다.

##### ① 유정성 고유의 위계와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어순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어순을 보면 유정성 고유의 위계는 어순의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편의를 위해 유정성 고유의 위계를 다시 보이면 아래와 같다.

##### (8) 유정성 고유의 위계(the Animacy Hierarchy Proper) :

인간 > 비인간 유정물 > 무정물

이 위계는 먼저 [ $\pm$ animate]의 자질로 유정물과 무정물을 구분하고, 다시 [ $\pm$ human]의 자질로 인간과 비인간 유정물을 구분한 것이다. 즉 생물학적인 유정성의 구분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계라 하겠다. ‘와/과’에 의해 접속되는 선행명사구가 유정성 고유의 위계에서 서로 다른 지위에 있을 때는 대체로 유정성이 높은 명사구가 유정성이 낮은 명사구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 (9) 가. 우리는 차제에 정 총리와 청와대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한다.  
나. 오늘날 정 후보와 ‘현대’의 문제는 자발적이나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그런 경우에는 운전자와 핸들 사이에 에어백이 나와 운전자를 보호하게 돼 있다.  
라. 그는 자원봉사 희망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회기관을 연결해 주는 일을 맡고 있다.  
마. 윗글을 읽고, 나와 우주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 사색한 바를 써보시오.

(9)의 예들은 실제 말뭉치에서 찾은 예들을 보인 것이다.<sup>11)</sup> (9)의 ‘와/과’에 의해 접속된 명사구들은 유정성 고유의 위계 상 선행명사구가 후행명사구보다 높은 유정성을 가진다. 이밖에도 유정성 위계가 서로 다른 명사구들이 접속된 예들을 유정성 고유의 위계에 따라 살펴보면 대체로 어순이 위계의 순서를 따른다. 채완(1985:468)에서도 병렬의 어순에 대해 다루면서 [+사람]과 [-사람], [+유정]과 [-유정]의 자질을 가진 단어가 병렬될 때는 [+사람], [+유정]이 앞선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로 화자는 [+유정]이고 [+사람]인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위의 예 이외에도 ‘사람과 짐승, 인간과 동물’ 등이 ‘짐승과 사람, 동물과 인간’보다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나 어순이 유정성 고유의 위계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Holly P. Branigan 외(2008)에서는 사람이 발화를 할 때 언어적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보의 접근가능성에 따라 어순이 결

11) 실제 말뭉치의 용례를 그대로 가져오면 불필요하게 길이가 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길이는 필자가 임의로 수정했음을 밝힌다. 다른 말뭉치 용례들도 이와 같은 수정을 가했다.

정된다고 했다. 즉 더 쉽게 상기될 수 있는 정보일수록 먼저 처리되어 발화 순서에서 앞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된 정보를 더 빨리 떠올리고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유정성 위계와 어순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몇몇 예들에서 예외가 발견된다.

- (10) 가. 사회와 독자는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다변을 요구한다.  
나. 이에 관련된 책임은 정부와 대학, 대학인 모두에게 있다.  
다. 이 부분은 국가와 국민의 분발을 촉구하는 대목이다.

(10)의 예는 후행 명사구가 [+animacy]의 자질을, 선행 명사구가 [-animacy]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유정성 위계에 반대되는 어순이다. 그러나 이런 예들을 분석해 보면 선행하는 [-animacy]의 명사구는 후행 명사구가 나타내는 [+animacy]의 대상이 속해 있는 곳이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집단이나 장소를 범위로 견주어 보았을 때 범위가 넓은 축에 속하는 곳인 경우가 많다. 또 [-animacy]의 명사구가 여러 개 병렬될 때에는 범위가 넓은 것이 좁은 것에 선행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정부’나 ‘국가’ 등의 명사구가 [+animacy], 특히 ‘인간’의 범주에 속하는 명사구와 접속될 때에는 상당수의 예에서 ‘정부’나 ‘국가’ 등이 선행한다. 이는 Nisbett(2003)에서 지적했듯이 한국 사람들이 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을 통해서 자기 개념을 파악하고, 관계 중심적 사고를 하는 인지적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유정성 위계와 어순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② 인칭 위계와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어순

앞에서도 보였듯이 Croft(1990)의 인칭 위계는 다음과 같다.

(11) 인칭 위계(a Person Hierarchy) :

1인칭, 2인칭 > 3인칭

Croft(1990)은 1인칭과 2인칭의 위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Crobett(2001)의 위계를 참고하면 인칭 위계는 다음과 같이 더 세분할 수 있다.

(12) 인칭 위계(a Person Hierarchy) :

1인칭(화자) > 2인칭(수신인) > 3인칭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어순이 유정성 위계를 따른다면 인칭 위계에서도 그 순서를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칭 위계는 다른 언어들에서 어순을 설명하는 주요 원리인 ‘나 먼저 원리(me-first principle)’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원리는 언중들이 여러 가지 현상이나 사태 그리고 사물들을 인지할 경우 자신의 가까운 쪽을 중심으로 먼저 파악한다는 인간 본유의 특성에서 기인한다(장기성 2012:239).<sup>12)</sup> 영어나 독일어 등에서도 등위 접속이 이루어질 때 인칭 위계를 따른다.

(13) 가. I and you

가'. you and I

나. Ich und Du

나'. Du und Ich

장기성(2012)에서는 Hawkinson & Hyman(1974:147) 등에서 기본적으로 NP에서는 1인칭<2인칭<3인칭의 어순을 취하는 것이 무표적임을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또 Clark & Clark(1977)에 의하면 ‘I and you’가 ‘you and I’보다 무표적이며 언어습득 과정에서 you보다는 I를 먼저 습득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어에서 Du und Ich가 쓰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공손의 관습이 어순에 투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를 토대로 다른 언어에서도 어순이 인칭 위계를 따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12) Ross(1980)의 내용을 장기성(2012:239)에서 재인용.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접속 양상이 다른 언어들과 현저히 다르다. 말뭉치에서 인칭 대명사가 접속된 ‘와/과’ 구성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sup>13)</sup>

<표 1> ‘1인칭+와/과+2인칭’, ‘2인칭+와/과+1인칭’의 빈도

	나와 너	너와 나	나와 당신	당신과 나
빈도	69 <sup>14)</sup>	261 <sup>15)</sup>	10	92

<표 2> ‘1인칭+와/과+3인칭’, ‘3인칭+와/과+1인칭’의 빈도

	나와 그/그녀/그들	그/그녀/그들과 나
빈도	32	223

<표 3> ‘2인칭+와/과+3인칭’, ‘3인칭+와/과+2인칭’의 빈도

	너와 그/그녀/그들	그/그녀/그들과 너	당신과 그/그녀/그들	그/그녀/그들과 당신
빈도	3	6	1	0

<표 1>은 1인칭과 2인칭의 접속을, <표 2>는 1인칭과 3인칭의 접속을, <표 3>은 2인칭과 3인칭의 접속을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어는 1인칭 대명사가 2인칭이나 3인칭 대명사에 비해 후행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이 드러났다. ‘너와 나’의 빈도가 ‘나와 너’의 빈도보다 약 네 배 가까이, ‘당신과 나’의 빈도가 ‘나와 당신’의 빈도보다 약 아홉 배 가까이 산출된 것으로 보아 한국어의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에서는 인칭 위계가 어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인칭과 3인칭의 경우를 보아도 ‘나와 그/그녀/그들’은 32회, ‘그/그녀/그들과 나’는 223회 등장함으로써 3인칭<1인칭 순으로 접

13) 앞서 밝혔듯이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사용했으며, 빈도를 산출한 말뭉치는 현대문어 원시 말뭉치이다.

14) 문어 원시 자료에서 빈도를 조사할 때 ‘나와 너’라는 책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왔는데, 책 이름이 반복되어 나온 것은 ‘나와 너’의 구성이 여러 번 쓰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으로 처리했다.

15) 문어 원시 자료에서 빈도를 조사할 때 ‘너와 나의 노래’라는 드라마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왔다. 따라서 이 경우도 빈도를 한 번으로 처리했다.

속된 구성이 약 일곱 배 많이 등장한다. 영어와 독일어의 경우에는 I나 Ich가 다른 인칭 대명사에 선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러한 점은 한국어의 특수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2인칭과 3인칭의 결합은 빈도수가 매우 적게 산출되어, 이 빈도로 어순이 위계를 따르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단정적인 결과를 내지 않기로 한다.

한국어에서 유정성 위계 상 가장 상위에 있는 1인칭 대명사가 하위에 있는 2, 3인칭 대명사에 후행하는 요인은 화용적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 동양인들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파악한다는 사실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데, 우리는 발화 시에 자신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예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이 상대방을 직접 지칭하는 대명사를 쓸 때 은연중에 반영되어 1인칭 대명사가 후행하는 어순으로 드러나는 듯하다.

‘우리’를 이야기하거나 1, 2, 3인칭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도 ‘나’는 전면

(14) 가. 너와 나인 우리

가'. ?나와 너인 우리

나. 당신과 나인 우리

나'. ?나와 당신인 우리

다. 너와 나, 제 삼자

라. 당신과 나, 그리고 저 사람

(14)의 예문을 보면 ‘너와 나인 우리’, ‘당신과 나인 우리’라는 표현은 자연스러우나 ‘나와 너인 우리’, ‘나와 당신인 우리’라는 표현은 어색하다. 말뭉치 예문에서도 (14가, 나)와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만 (14가', 나')와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1, 2, 3인칭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에도 접속 순서는 2인칭<1인칭<3인칭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여러 언어에서 어순을 결정하는 원리로 받아들여지는 ‘나 먼저 원리’가 한국어 인칭 대명사의 어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③ 인간 범주 내 유정성 위계와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어순

여기에서는 인간 범주로 범위를 한정하여 어순을 살펴볼 것이다. 즉 Crobett(2001)의 위계 중 ‘화자(일인칭 대명사) > 수신인(이인칭 대명사) > 삼인칭 > 친족 > 인간’까지의 범주를 중심으로 어순을 분석한다. 다만 앞서 인칭 위계에 해당하는 어순은 이미 논의했기 때문에 인칭 위계를 나누지 않고 크게 ‘대명사 > 친족 > 인간’의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말뭉치 예문을 검토해 보면 1인칭 대명사와 친족어의 접속이 특히 흥미로운 양상을 띤다.

(15) 가. 그날 점심 무렵에야 아버지와 나는 대밭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다.

나. 어머니와 나는 그 대학에 가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말다툼을 벌인다.

다. 대충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남편과 나는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살폈다.

라. 그 사람이 나와 동생들에게 언성을 높였다.

유정성 위계에 따르면 친족어, 즉 가족을 지칭하는 단어보다는 1인칭 대명사인 ‘나’가 위계 상 상위에 있다. ‘나 먼저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나’는 다른 것에 선행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무표적인 어순인 듯하다. 그러나 (15)처럼 친족어와 ‘나’가 접속될 때에는 주로 나이에 따라, 그리고 ‘나’와의 심리적인 친근성에 따라 어순이 결정되는 모습이 보인다. 친족어와 1인칭 대명사가 접속된 ‘와/과’ 구성에서 많은 예들이 나이에 따라 어순이 결정되며, ‘나’ 또한 나이 순서로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접속된다. 이런 점 또한 관계를 중요시 하는 한국어 화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6) 가. 어머니와 그 남자는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 네 명이 한 조가 되는 대신 아버지와 그녀 둘이 한 조가 되었다.

다. 나와 내 동행이 빌린 아파트만 해도 하루에 14달러였다.

라. 내 생각과 행동이 나와 타인의 어느 작은 면이라도 공헌한다는 판단이 섰다.

마. 때로는 나와 어떤 사람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있다.



친족어와 인간 범주의 다른 표현이 접속될 때에도 친족어가 선행하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 (16나)의 경우 ‘그녀’라는 3인칭 대명사는 위계 상 1, 2인칭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후행하고 있다. Nisbett(2003:55)에서는 철학자 도널드 먼로가 동양인들은 인간을 “가족이나 사회 혹은 도의 원리와 같은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한다”고 말한 표현을 빌어, 동양인들이 자신들이 속한 내집단에 대해 강한 애정을 보임을 설명했다. 이런 사고는 내 가족, 내 혈연이 타자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게 하며, 언어적으로 친족어가 3인칭에 선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1인칭 대명사의 병렬이나 친족어와 1인칭 대명사의 병렬과 달리 (16다, 라, 마)처럼 1인칭의 ‘나’가 2, 3인칭 대명사가 아닌 다른 표현과 함께 등장할 경우에는 ‘나’가 앞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타인’이나 ‘어떤 사람’ 등 나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불특정한 사람과 ‘나’를 병렬할 경우 대부분 ‘나’가 선행한다. 곧 인칭 위계의 측면에서는 2, 3인칭 대명사가 특정한 사람을 지시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불특정한 사람일 경우에는 ‘나 먼저의 원리’가 적용되어 ‘나’가 다른 사람에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 4.2. 유정성 위계가 동등한 명사구의 어순

지금까지는 유정성 위계가 서로 다른 명사구의 어순을 살펴보고, 그 어순이 유정성 위계를 따르지 않는 경우 어떤 인지적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보았다. 여기서는 유정성 위계 상 같은 위치에 있는 명사구들이 접속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다. 유정성 위계가 동등한 명사구들은 소속, 친족어, 직위, 신분 등 몇 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sup>16)</sup>

16) 비인간 유정물이나 무정물의 ‘와/과’ 접속은 인간 범주 내의 명사구 접속에 비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들이 접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도 세부적으로 어순을 살펴보면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인 나 먼저 원리(me-first principle), 자연성의 원리(naturalness principle), 현저성의 원리(salience principle)가 적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후고로 미루고 주로 인간 범주 내의 명사구 접속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7) 소속 : 한국인과 일본인

지사 직원과 현지인 직원  
많은 국민과 외국인들  
재일 한국인과 지한파 일본인  
가족과 친척  
한국민과 미국민

(18) 친족어 : 아내와 딸들

부모와 처자  
부모와 자녀  
시아버지와 며느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19) 직위 :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

강 사장과 함 부사장  
공장장과 전 사원  
교수와 학생들  
총리와 장·차관  
교장선생님과 담임  
원장과 임직원

(20) 신분 : 양반과 상놈

적자와 서자

(17), (18), (19), (20)은 각각 소속, 친족어, 직위, 신분 관련 명사구가 접속되었을 때의 어순을 보인 것이다. 이들은 유정성 위계에 있어 지위가 동등하기 때문에 어순이 특정한 경향성을 보인다면 다른 요인이 작용되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의 어순은 다른 언어의 어순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되어 온 ‘나 먼저 원리’, ‘현저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듯하다. ‘나 먼저 원리(me-first principle)’는 앞서 논의했듯이 언중들이 자신과 가까운 쪽을 중심으로 먼저 파악한다는 것이다. ‘현저성의 원리(salience principle)’는 두드러진 쪽

이 두드러지지 않은 쪽보다 먼저 지각된다는 원리로, 우리의 인식은 적극적인 요소와 소극적인 요소 중 적극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쉽게 지각될 뿐 아니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힘의 원리(power source)’이기도 하다 (장기성 2012:248).<sup>17)</sup>

먼저 (17)의 소속을 나타내는 명사구 접속을 보면 그 어순이 ‘나 먼저 원리’를 따르고 있다.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가정 내에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 지사 직원, 국민, 가족’ 등이 ‘일본인, 현지인 직원, 외국인, 친척’ 등에 선행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것이다. 또 (18), (19), (20)의 예에서는 ‘현저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현저성의 원리에 따르면 나이가 더 많은 쪽이 나이가 적은 쪽보다, 직위가 높은 쪽이 직위가 낮은 쪽보다, 신분이 높은 쪽이 신분이 낮은 쪽보다 두드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예에서 선행 명사구가 후행 명사구보다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여 위와 같은 어순을 형성한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빈도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표 4> ‘이것, 저것’의 어순 빈도

	이것과 저것	저것과 이것
빈도	16	1

<표 4>는 ‘나 먼저 원리’가 어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의 근거가 된다. 영어에서도 ‘나 먼저 원리’가 적용되어 ‘here and there, this and that, now and that, sooner or later’의 어순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도 ‘이것, 저것’이 병렬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것과 저것’이 ‘저것과 이것’에 비해 많은 빈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17)의 예문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나 먼저 원리’가 어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5, 6, 7>은 ‘현저성의 원리’가 어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17) Muller(1997)의 내용을 장기성(2012)에서 재인용.

<표 5>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의 어순 빈도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빈도	264	65	157	65

<표 6> ‘부모, 자식’의 어순 빈도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빈도	56	6

<표 7>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의 빈도

	아빠와 엄마	엄마와 아빠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
빈도	29	56	241	79

‘현저성의 원리’에 따르면 성별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하고, 가족 관계에 있어 연장자가 연소자보다 현저하다. <표 5, 6, 7>의 빈도는 모두 이에 합당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런데 <표 7>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예외가 있다. 바로 ‘아빠와 엄마, 엄마와 아빠’의 빈도에서 ‘엄마와 아빠’의 빈도가 약 두 배 가량 많다는 것이다. ‘현저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빠와 엄마’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이 경우만 빈도가 뒤집히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화자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빠, 엄마’의 호칭은 ‘아버지, 어머니’의 호칭보다 상대적으로 덜 격식적이며, 편한 자리에서 사용되는 호칭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이 언어에 반영되기 쉬우며,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성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을 꾸려 나가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엄마와 자식 간의 친밀도가 언어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이밖에도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다른 예들을 보면 ‘자연성의 원리’가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볼 수 있다. ‘자연성의 원리(naturalness principle)’는 인지체계에서 단순하고 쉽고 긍정적인 쪽이, 어렵고 부정적이며 복잡한 쪽보다 더 잘 인지되고, 일찍 습득되는 성향을 말한다. 즉 단순하고 긍정적인 쪽이 NP에서 앞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다(장기성 2012:243).<sup>18)</sup> 실제 말뭉치

용례를 보면 ‘공부를 잘 하는 학생과 못 하는 학생, 정상적이고 선한 나와 비정상적이고 악한 타자’ 등의 어순이 나타나 ‘자연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채완(1985:464)에서도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의 병렬 어순은 긍정적 개념과 부정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병렬될 경우 긍정적 개념을 나타나는 쪽이 앞선다는 것을 언급했다.<sup>19)</sup> 이처럼 한국어에서 유정성 위계가 동등한 두 명사구의 경우, ‘와/과’에 의해 접속될 때에는 일반적인 어순의 원칙을 따른다.

## 5. 나가기

지금까지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과 어순을 유정성 위계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 측면에서 본다면 선후행 명사구가 유정성 위계 상 동일한 지위에 있을 때 접속이 가장 자연스러웠다. 선후행 명사구의 유정성 위계가 서로 다르다면 위계가 높은 쪽이 선행하고, 낮은 쪽이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교호성 동사가 사용되거나,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가 관형어로 사용될 때, 무정물에 환유적 의미의 유정성이 부여될 때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위계가 서로 다른 명사구의 접속이 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다.

어순을 보면 많은 연구들에서 유정성이 어순을 통해 드러난다고 주장했는데, 유정성 고유의 위계에 국한시키면 한국어도 유정성이 어순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칭 위계나 인간 범주 내 유정성 위계에서는 다른 언어와 달리 유정성의 정도와 어순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한국 사회 내의 특수한 문화와 관련된 한국어 화자들의 인지 구조가 언어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정성 위계가 동등한 명사구들의 접속에서는 다른 언어들에서 어순을 결정하는 원리로 언급되는

18) Schwarz(1994), Deane(1996)의 내용을 장기성(2012:243)에서 재인용.

19) 이에 대한 예로는 ‘더하기 빼기-\*빼기 더하기, 찬성 반대-\*반대 찬성, 직접 간접-\*간접 직접, 옳으니 그르니-\*그르니 옳으니’ 등이 있다(채완 1985:464-466).

‘나 먼저 원리, 자연성의 원리, 현저성의 원리’가 한국어에도 영향을 미쳤다.<sup>20)</sup>

본고는 유정성을 중심으로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를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인지적 접근법을 취했다. 이때 Croft(1990)와 Crobett(2008)의 유정성 위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들의 유정성 위계는 무정물을 세분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가시성, 감정 이입의 정도, 심리적 친밀도 등에 따라 유정물도 유정성이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무정물이라도 유정성이 인지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더 세분된 유정성 위계를 중심으로 어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가 유정성 위계를 넘어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았는데, 다른 언어들은 어떠한지 대조하여 살펴보는 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번역문을 대상으로 다른 언어에서의 등위 접속 어순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것도 한국어 화자들의 인지 구조가 언어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후고로 미루어 두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김성주(1995), “접속의 구조와 절차”, 『동국어문학 7집』, 283-297.  
 김영희(1974), “대칭 관계와 접속조사 ‘와’”, 『한글 제154호』, 41-63.  
 김은일(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 71-96.  
 김종록(1999), “국어 접속의 다단계성과 접속소의 기능(1)”, 『국어교육연구 제31집』, 127-151.  
 박호관(2001), “국어 명사구의 유형과 통사 구조”, 『우리말글 제23집』, 25-48.

20)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유정성 위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그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유정성 위계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저자의 시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유정성 위계를 1차적인 기준으로 삼아 어순을 검토하고 유정성 위계를 따르지 않는 경우 어순이 설정되는 다른 기준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 어느 요인이 더 상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예들을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연구가 부족한 탓이다.

- 박호관(2002), “국어 접속 명사구의 통사 구조와 의미”, 『우리말글 제24집』, 23-40.
- 성창섭(2008), “영어 등위접속의 제약”, 『언어과학 제15권』, 71-82.
- 윤희수(2009), “의미자질 [HUMAN]이 일부 어휘구조와 문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연구 51』, 157-174.
- 임홍빈(1972), “NP-병렬의 {와/과}에 대하여”, 『논문집』, 141-164.
- 장기성(2012), “독어에서 유표성과 병렬적 명사구의 어순제약”, 『언어과학연구 61』, 233-258.
- 장태진(2008), “국어 병렬 어순의 기초적 유형과 어순삼각도의 제안”, 『국어학 제52호』, 86-261.
- 전만수(2009), “영어 등위접속 어구의 도상적 순서”, 『인문학논총 제14권』, 89-105.
- 채완(1985), “병렬의 어순과 사고방식”, 『국어학 14』, 463-477.
- 최재희(1985), “국어 명사구 접속의 연구”, 『한글 제188호』, 91-115.
- Richard E. Nisbett 저, 최인철 역(2004), 『생각의 지도』. 김영사.
- Branigan, Holly P. & Pickering, Martin J. & Tanaka, Mikihiro(2008), Contributions of animacy to grammatical function assignment and word order during production, *Lingua*
- Crobert, Greville G. (2001), *Numb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ttila, Seppo & Vasti, Katja & Ylikoski, Jussi eds. (2011), Introduction to case, animacy and semantic roles, *Case, Animacy and Semantic Rol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Yamamoto, Mutsumi(1999), *Animacy and Referenc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roft, William(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위당관 516호(언어정보연구원)  
전화 번호: 010-3881-9148  
전자 우편: arhapsody@yonsei.ac.kr

원고 접수일: 2013년 10월 30일  
원고 수정일: 2013년 12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2월 24일